



이지영이 25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더블린에서 열린 미 여자프로골프투어(LPGA) 웬디스 챔피언십 대회 1라운드 17번홀에서 티샷 후 공의 방향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설기현·박지성 첫 골 쏜다

프리미어리그 3총사 오늘 밤 동시 출격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딩 FC의 '스나이퍼' 설기현(27)이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사냥에 나선다.

설기현은 26일 밤 11시(이하 한국시간) 열리는 2006~2007 프리미어리그 3차전 위건 어슬레틱과 원정경기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진출 7년 만에 '꿈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설기현은 정규리그 개막전과 2차전에서 어시스트 1개씩을 기록하는 등 윙포워드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두 경기 모두 최우수선수(MVP)로 뽑히기도 했다.

현재 도움 2개로 리그 전체에서 1위, 크로스 성공 수에서는 8개로 4위에 올라 있는 설기현은 다시 한번 자로 잦듯한 크로스로 3경기 연속 도움을 올릴 기대다.

프리미어리그 선배인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29·토트넘 핫스퍼)도 설기현과 같은 시간 각각 왓포드, 에버튼과 경기를 치른다.

박지성은 맨유 공격의 핵심 웨인 루니와 폴 스콜스가 출장 정지를 받아 결정하기 때문에 선발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영표는 이번에도 오른쪽 윙백으로 출장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주 포지션인



설기현



박지성



이영표

왼쪽 윙백 자리를 카메룬 출신 이적생 베누아 아수 에코토에게 넘겨줬지만 오른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에 활발하게 가담하며 팀 전력에 보탬이 된다는 각오다.

대표팀 재합류가 유력시되고 있는 차두리(26·마인츠05)는 27일 자정 전 소속팀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홈 경기에 나선

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는 최근 부상을 털고 득점포까지 가동한 조재진(시미즈 S펄스)도 26일 오후 7시 FC 도쿄와 홈경기에서 시즌 10호골을 노리고 김정우(나고야 그램퍼스)는 27일 오후 7시 감바 오사카와 홈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타자' 이지영 공동 선두

LPGA 웬디스챔피언십 1R 6언더파

'장타자' 이지영(21·하이마트)의 상승세가 눈부시다.

작년 CJ나인브릿지클래식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해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입성한 새내기 이지영은 25일(한국시간) 미국 동부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타탄 필드골프장(파72·6천517야드)에서 열린 웬디스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이글 1개를 뽑아내고 보기 2개를 더해 6언더파 66타를 뽑아냈다.

스테이시 파라마나수드, 케이티 퓨처, 크리스탈 파커-만조(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오른 이지영은 이로써 최근 3개 대회 연속 1라운드에서 선두권에 이름을 올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과시했다.

당당한 체격에서 뿜어나오는 장타가 일품인 이지영은 빨랫줄 드라이브샷을 아낌없이 과시했다. 올해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 275.9야드로 전체 LPGA 투어 선수 가운데 4위에 올라 있는 이지영은 평균 286야드에 이르는 장타를 폭발시켰다.

10번홀에서 출발한 이지영은 11번홀(파5), 12번홀(파4), 13번홀(파4)에서 줄 버디를 쏟아내며 기세를 올렸고 15번홀(파3)에서도 버디를 잡아내 일찌감치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1번홀(파4) 보기로 주춤했지만 2번(파4), 3번홀(파4) 연속 버디로 만회한 뒤 4번홀(파5)에서는 짜릿한 이글 퍼트를 떨어뜨려

리더보드 맨 앞줄을 차지했다. 6번홀(파3)에서 1타를 잃은 이지영은 남은 3개홀에서 파행진을 벌인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앞서 열린 캐나다여자오픈과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첫날 선두권에 나서고도 우승까지 내달리지 못한 이지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들은 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상금랭킹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카리웹(호주)과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나란히 5언더파 67타를 때려내며 이지영에게 1타차 공동 5위에 진출한 것이 위협적이다.

이밖에 일주일 전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 이었던 세이프웨이클래식에서 목 부상으로 기권했던 강수연(30·삼성전자)이 5언더파 67타를 쳐 1타차 공동 5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황제 우즈 4연승 '시동'

PGA 브리지스톤인비테이셔널 1R, 3언더 4위

최경주는 3오버파 부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귀국을 앞둔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하위권으로 밀렸다.

우즈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의 파이어스톤골프장(파70·7천360

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브리지스톤인비테이셔널 1라운드에서 3언더파 67타를 쳤다.

7언더파 63타의 불꽃타를 휘둘러 단독 선두를 쫓던 애덤 스콧(호주)에 4타나 뒤진 공동 4위지만 1, 2라운드에서는 '소걸음'을 걷다 3라운드에서 선두권을 따라 잡고 최종 라운드에서 쐐기를 박는 우즈의 경기 스타일

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첫날인 셈이다.

우즈는 뷰익오픈 때도 1라운드에서 선두 마이크 웨어(캐나다)에 3타차 공동 6위였지만 다음날 공동선두로 도약한 끝에 우승을 차지했고 PGA챔피언십에서도 첫날은 공동 선두 그룹에 3타 뒤진 공동 10위였지만 3라운드에서 공동선두로 올라선 뒤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31일 개막될 한국프로골프 신한동해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29일 귀국할 예정인 최경주는 버디 2개에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를 곁들이며 3오버파 75타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냈다. 최경주는 출전 선수 78명 가운데 공동 63위로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타격왕 '李관四判'

올해 프로야구 순위타자 타이틀 경쟁이 이(李)씨 4총사의 방망이 대결로 뜨겁다. 4년차 이택근(26·현대)과 6년차 이대호(24·롯데), 3년차 이용규(21·KIA), 10년차 이병규(32·LG) 등 이씨 4명이 타격 부문 1위부터 4위까지 점령했다.

이택근과 이대호가 시즌 타율 0.332로 똑같지만 1모(0.0001) 차로 이택근이 리딩히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용규는 타율 0.322, 이병규는 0.317로 4명이 2푼 범위 내 점진 중이다.

이들 4명은 영문으로 성(姓)이 'LEE'라는 것 말고도 2006 도하 아시아게임에 출전할 대표팀 예비 엔트리 31명에 포함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대호만 내야수이고 외야수 이택근과 이용규, 이병규는 22명의 최종 명단에 들기 위해 다투어 하는 데다 태극마크를 달더라도 대표팀 안에서 주전 경쟁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우타자 이택근과 이대호가 타격 1, 2위로 좌타자 이용규, 이병규를 압도하고 있는 상태.

이택근은 규정타석을 채우면서 지난 5



삼성 PAUW 프로야구

이택근·대호·용규·병규

이씨 4명 1위~4위 점령

2푼 범위내 치열한 점진

월16일 처음 타격 1위로 나서 선두권을

쫓길 유력했지만 이대호와 이용규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이용규가 5월28일부터 6월8일까지 열흘 넘게 순위타자로 맹위를 떨쳤고 이대호도 지난 13일 타격과 홈런과 타점 등 3개 부문 1위로 올라서며 '타격 트리플 크라운' 요건을 갖추기도 했다.

지난 2003년 포수로 현대에 입단한 뒤

1루수와 3루수, 외야수를 전전했던 이택근은 지난 해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지만 71경기에서 타율 0.331의 고감도 타격감을 뽐냈고 올 시즌 불발이 중견수 겸 중심타자로 활약하며 성공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지난 겨울 지옥 훈련과 식이요법으로 몸 무게를 10kg 가까이 줄이며 배트 스피드를 높인 이대호도 홈런 2위(18개)와 타점 공동 1위(67개), 장타율 1위(0.554)의 좋은 성적으로 '거포' 이미지를 굳혔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을 2군으로 밀어내고 톱타자 자리를 꿰차 KIA의 가파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이용규도 최근 5경기 타율 0.381(21타수 8안타)의 호쾌한 방망이를 앞세워 리딩히터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해 타격왕(타율 0.337)을 차지했던 이병규도 최근 방망이가 주춤하지만 지난 해까지 4차례 안타왕을 차지했던 '안타 제조기' 명성에 걸맞게 최다안타 부문 1위(120안타)를 달리며 순위타자 2연패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미녀 테니스 스타 총출동

2006 한솔 코리아여자오픈테니스 9월 23일 개막

9월23일부터 10월1일까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2006 한솔 코리아여자오픈테니스대회에 출전할 스타급 선수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올해 전 세계랭킹 1위 출신 '알프스소녀' 마르티나 힝기스(9위·스위스)를 데려오는 데 성공한 이진수 한솔오픈 조직위원장 겸 대한테니스협회 홍보이사는 25일 국제테니스연맹(ITF) 서울총회에 앞서 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의 명단을 밝혔다.

총상금 14만5천 달러가 걸린 4급 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톱시드를 받은 힝기스를 비롯, 마리아 키리렌코(21위·러시아) 마리온 바톨리(27위·프랑스), 스키야마 아이(29위·일본) 등 20위권에 포진한 선수 세 명이 참가해 대회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 베라 즈보나레바(34위·러시아) 자셀라 돌코(37위·아르헨티나), 루시 사파로바(38

위·체코), 소피아 아비드손(39위·스웨덴) 등 30위권 선수들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특히 인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사니아 미르자(44위)도 지난 4월 페더레이션컵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전망. 한솔오픈 관계자는 "미르자를 취재하기 위해 인도 현지 언론에서 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등 벌써 미르자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털어놓았다.

2004년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3위·러시아)에 이어 지난해 '제2의 샤라포바'로 불리는 니콜 바이다소바(10위·체코)를 한국 팬들에 소개했던 한솔오픈은 올해 힝기스를 필두로 키리렌코, 미르자 등 장차 세계 여자 테니스계를 이끌 유망 선수들을 초청, 올해도 수준 높은 플레이에 목말랐던 테니스팬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6일(토)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준결승(15:00·SBS스포츠)

▲일본프로야구<한신-요미우리>(17:45·Xports)

▲프로야구<KIA-현대>(18:00·SBS스포츠), <한화-삼성>(18:00·KBS SKY SPORTS), <롯데-SK>(18:30·MBC ESPN)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와포드-맨체스터Utd>(23:00·MBC ESPN)

27일(일)

▲LPGA투어 웬디스 챔피언십 3R(03: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디트로이트-클리블랜드>(07:55·Xports)

▲프로축구<광주-울산>(13:50·KBC)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결승(15:00·SBS스포츠)

▲프로야구<한화-삼성>(16:30·KBS SKY SPORTS), <KIA-현대>(16:50·SBS스포츠)